

-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시 정 질 문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사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어 가고
제시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 제
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
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연무·강경·채운을 지
역구로 둔 서원 의원입니다.

우선 늦게나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신
황명선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분권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양 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
다. 현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단체장 중
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 단체장 약 의회를 채택하
고 있습니다. 논산시만 하더라도 12명의 의
원이 있고 논산시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도래했
지만 제대로 전제 감시 할 수단과 권한이
부족합니다.

물론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본질적 기능에 충
실하고 의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도 지양되어

야 하겠지만 반대로 대책없는 무조건적인 동의나 같은 정당이라는 미명하에 찬양론만 펼친다면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민 여러분의 매섭고 단호한 평가가 뒤 따를 것입니다.

지방 자치의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단체장을 견제와 감시할 수 있고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앙집권의 반대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에서도 지방자치가 되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양측이 있는데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국 기초의회의 목소리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되겠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의 역할을 하실 때 지방의회의 입장도 함께 감안하시어 꼭 기초의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산시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마케팅의 긍정적 사례를 근거로 과연 논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논산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회 유치에 미온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결국 극복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국 각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나서 축제와 스포츠를 테마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실정입니다.

여기제신 여러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4강 진출을 경험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4강에 진출하기까지의 드라마 같은 경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

운 경제 때문에 어깨가 축 쳐진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한 줄기 단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힘은 이렇게 큼니다.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빼 놓을 수 없
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의 스포츠산
업 규모는 2015년 기준 43조원으로 추산되
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다른 산
업에 비해 높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와 오락 스포츠산업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스포츠산업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각종 국제대회 유치
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가장 발 빠른 곳은 강원도입니다.

이렇다 할만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의 여러 시·군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 대회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스포츠와 접목시켜 여러 실업팀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구 15만명이 조금 넘는 전남 광양시는 축구 전용구장을 지어 전남드래곤즈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대회 유치를 통해 축구 도시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군은 지난 2013년부터 스포츠 마케팅에 남다른 노력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싱을 비롯해 모두 51개의 대회를 개최했고

청양군 인구보다도 많은 4만 3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개최의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18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논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김천시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큰 낙수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서천군은 2022년까지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2018년 5월 대전MBC, 충남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천군은 200명의 선수단은 물론 국내 수천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회 개최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시는 2018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스포츠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해 국제대회 2개 등 37개 스포츠 대회로 300억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금산군의 경우도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 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금산군은 내년 ▲5월 전국족구대회 ▲7월 전국학생사이클대회

▲8월 전국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 배드민턴·탁구·이승 테니스대회 ▲10월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등을 유치 예정입니다.

반면에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논산공고족구단 선수들이 수차례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야구와 비교하면, 고교야구팀이 프로에 진출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전국 최강부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올해 대학에 진학해 이제는 건양대족구단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논산시는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대회 유치 등에도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타 시군에서는 이들 선수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좋은 조건들을 내걸고 선수들을 빼 가려고 하는 악 조건에서 논산시족구협회장 사비로 선수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어렵게 족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현 논산체육의 단면입니다.

2016년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

니다.

논산시는 경쟁력있는 지역 축제와 관광지, 농·특산물이 많기에 이와 연계해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국가국방산단 유치와 탐정호 출렁다리 조성 등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논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작년 우리 논산시는 인라인 스케이트 전국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의 예산지원은 6천여 만원에 달했는데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는 5억원이 넘는 것으로 관광체육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스포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 논산시의 구조적 변화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관광체육과에 스포츠 산업팀 신설을, 시 체육회에서는 각 경기가맹단체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엘리트 스포츠 선수육성을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적극 유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렛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05m^2 에 반해 우리 논산시는 2019년 기준 시민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이

0.8424 m²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4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는 스포츠산업의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권장하는 체육시설 면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는 바이며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2. 9.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